

단체 활동 소개 자료 (2015-2019)

배우공동체 자투리

자투리 소개

배우공동체 자투리는 2009년 5월 창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7년간 사회적기업으로 주) 배우공동체 자투리로 활동하였으며 2019년 인증반납 후 기존 배우공동체 자투리로 다시 활동을 재개해오고 있습니다. 극단이라기보다는 지역 연극인 길드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로 처음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하나의 공연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참여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관을 가지고 단체를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길드의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우공동체 자투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예술적 가치는 다양성의 추구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국제교류 활동 특히 6회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인천 이중언어연극제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확립되었습니다. 세계의 연극인들과 교류하면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교류를 전제로 하는 인천 이중언어연극제는 2013년 시작하여 3년을 진행하고 한해를 쉬는 형태로 진행되어 2019년 6회 연극제를 개최하였고 총 8개국 연인원 400여 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배우공동체 자투리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의 연극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극제에 참가한 국내 연극단체들과 프로젝트 그룹들의 국제교류 역량을 키우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 제7회 연극제가 10월 5~10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공연 제작 부분에서는 번역극과 창작극 양측에서 고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번역극의 공연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었던 작품 위주로 제작하였는데 독일 작가 페르난드 브루크너의 "유년(청춘)의 고통", "갈등(인종)" 미국 작가 랜포드 윌슨의 "태워버려" 베트남 작가 레치정의 "한밤중의 발자국 소리" 등이 있습니다. 창작작품으로는 뮤지컬 부분에는 우리 고유 캐릭터를 활용한 가족 뮤지컬 "양갱이" 지역 명산을 소재로 제작된 "문학산 연가"가 있으며 연극 부분에서는 기존의 작품을 각색하여 재창조한 "안티고네" "폴리네이케스를 위하여"가 있으며 공동창작을 통한 작품으로 실제로 인천 신포시장에 있었던 선술집 백향아리집을 소재로 제작된 "백향아리집 큰딸은 어디로 갔을까?", 인천시청역 댄스 연습실 이용 청소년들의 꿈을 소재로 한 "스테이션 시티홀", 그리스 신화와 제주 무가의 비교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아트레우스 프로젝트"와 "아트레우스 프로젝트 II_천지왕본풀이"가 있습니다. 이들 최근의 공동창작물들은 나래티브 테크닉을 활용하여 배우들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작품으로 배우공동체 자투리가 추구하는 다양성을 한껏 살려낸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대본 중심, 분석중심의 연기적 접근에서 이야기 중심, 컴포지션 중심의 연기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배우공동체 자투리는 작품 안에서 대립하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관객의 취향이나 지적 수준에 맞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피소드들의 병렬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다의성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성 연극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배우공동체 자투리는 그동안 제작한 전 작품들 속에서 다양성이란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배우공동체 자투리의 정체성을 담은 전형적인 주제 의식이 그동안 제작된 전 작품을 관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상기한 작품들 가운데서 나름의 성취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부분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공유하는 11개 지역아동센터와 MOU를 맺고 공조하고 있으며 인천 이중언어연극제로 네트워크 된 다문화 커뮤니티와 이중언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인 "한 지붕 두 개의 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을 이루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예술 전문 교육으로는 지역 초·중·고 예술가들을 키우기 위한 작은 연극 아카데미를 통해 아크로바틱, 보컬, 무용, 연기 등의 무료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동반자 사업의 전문 연수기관으로 "개항"이라는 연극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5개월간 진행하여 필리핀과 베트남의 연극인들을 초청하여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단단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공동체 자투리 2015-2019 공연 활동실적

공연제작 관련 활동실적		
연 도	공연명	지원기관
2019. 11. 1-3.	스테이션 시티홀	인천문화재단
2019. 6. 9-20.	앙팡이 (Ang-Gwaeng-I)	한국메세나협회
2019. 4. 26-28.	아트레우스 프로젝트 II 천지왕 본풀이	인천문화재단
2018. 10. 24-26.	아트레우스 프로젝트	인천문화재단
2017. 12. 14-16.	폴리네이케스를 위하여	인천문화재단
2016. 12. 21-22.	뮤지컬 문학산 연가	한국메세나협회
2016. 12. 6-9	내 친구는 신발도둑	남구학산문화원
2016. 6. 23.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내친구는신발도둑)	인천시 남구청
2016. 6-11.	예술꿈버스 (내 친구는 신발도둑)	서울교육청
2015. 12. 16-20.	갈등(Die Rassen)	인천문화재단
2015. 10. 9-11.	안티고네	인천문화재단/부평구문화재단
2015. 6. 27-28.	약속(문학산연가) 부개문화사랑방	한국메세나협회
2015. 6. 12-21.	약속(문학산연가) 해오름 예술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4. 1-11.	내 친구는 신발도둑 부개문화사랑방	인천문화재단

국제교류관련 주요활동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2019. 7. 1. - 11. 30.	2019 문화동반자 사업 전문연수 “개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9. 27-29.	제6회 Incheon Bilingual Theatre Festival-(필리핀,러시아,베트남,한국)	
	한 밤중의 발자욱소리 / Tieng-Giay-Dem (베트남)	
	세자매 / Три сестры (러시아)	
	침묵 / Hilom(필리핀)	
2019. 6. 9-20.	헐리우드 프린지 참가_앙팡이(Ang-Gwaeng-I)	한국메세나협회
2018. 7. 1. - 11. 30.	2018 문화동반자 사업 전문연수 “개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10. 26-28.	제5회 Incheon Bilingual Theatre Festival-(필리핀,러시아,베트남,한국)	
	행복의 조건 / TIÊU CHUẨN CỦA HẠNH PHÚC (베트남)	
	질문과 대답사이 / Между вопросом и ответом (러시아)	
	복덕방 / Ang Tanggapan (필리핀)	
2017. 12. 15-17.	제4회 Incheon Bilingual Theatre Festival-(필리핀,러시아,중국,한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야 / 原野 (중국)	
	폴리네이케스를 위하여 / АНТИГОНА (러시아)	
	드래곤 SISTERS / Dragon Sisters (필리핀)	
2017. 11. 11.	안티고네 (폴리네이케스를 위하여) 모스크바공연	한국메세나협회
2016. 8. 2-7.	Midtow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참여	한국메세나협회
2015. 10. 8-18.	제3회 Incheon Bilingual Theatre Festival-(필리핀,러시아,베트남,한국)	부평구문화재단
	안티고네 / АНТИГОНА (러시아)	
	노처녀 노총각 / Ang Soltera at Ang Soltero (필리핀)	
	거울을 본다 / Qua Song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활동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2017.	2017꿈다락문화학교 “한지붕 두 개의 말 중국어-한국어”	인천문화재단
2017.	창영초 연극교실	창영초
2016.	남구지역아동센터 연극교실	
2015.	경기 글로벌센터 청소년 대상 연극교실	부평구문화재단
2015.	서흥초 연극교실	서흥초
2015.	리틀다마얀 연극교실	부평구문화재단
2015.	남구지역아동센터 연극교실	자체행사